“고달사, 韓선종 · 천태종 발전에 기여”

동국대 불교학술원, ‘고달사지 역사성’ 주제 학술대회

고달사, 신라시대 선종으로 시작
고려代 천태 전향… 中과 차별성
고달사지 미술 · 보존정책도 조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여주 고달사지가 선종사찰에서 천태종 사찰로 전환되며, 선종과 천태종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이 8월 10일 여주 신륵사 강당에서 ‘고달사지의 역사성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여주 신륵사(주지 법성)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이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 교수는 ‘신라~고려시대 고달사의 변천과정과 불교사적 위상’을 통해 고달사의 변화를 주석 고승들의 행적을 통해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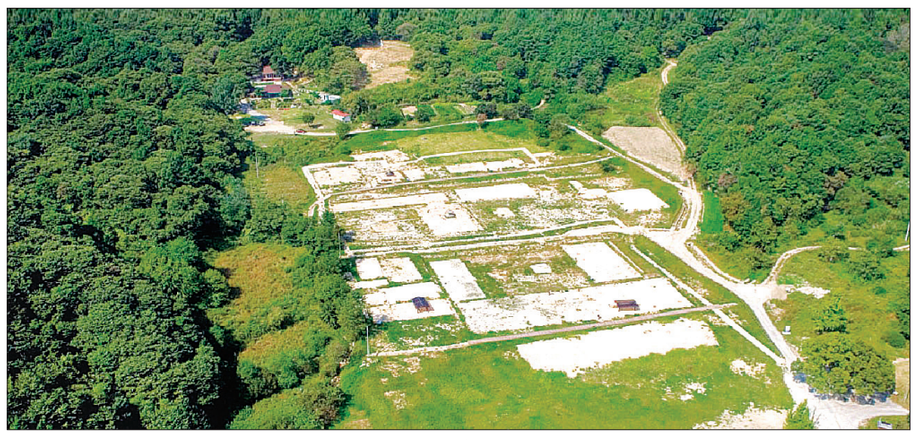
최 교수에 따르면 고달사는 9세기 중엽에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원감대사(圓鑑大師)가 개창하여 신라 말기 주요한 선종 도량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곳에서 수학한 여러 선승들이 전국에서 선법을 홍포했다.

후삼국 시기 전란 과정에서 고달사의 사세는 일시적 쇠퇴했지만, 고려 초기 원감대사의 법손인 원종대사가 주석하면서 다시 주요 선문으로 부흥했다. 고려 왕실도 고달사를 ‘부동선문(不動禪門)’으로 지정해 그 선풍이 이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고달사는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종 도량에서 천태종 도량으로 변화한다. ‘선봉사대각국사비’에 따르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1101년 천태종을 개창할 때 고달사는 산문 전체가 천태종으로 전향했다. 이후 고달사는 천태종을 구성하는 여섯 산문의 하나로 고려 말까지 천태종의 주요 사찰로 기능했다.

당시 천태종으로 전환된 기존의 선종 사문들은 모두 천태종의 근거지인 중국 절강성 지역에서 유학한 스님들의 가르침을 계승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고달사의 중창주인 원종대사는 중국 유학 중 천태산과 절강성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거돈사와 영암사에 각기 탑비가 세워진 원공국사와 적연선사 연준은 절강성에 있던 오월국에 유학해 연수선사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다.

최 교수는 “중국 절강성 지역은 천태종의 영향이 강했고, 이곳의 선종 승려들은 천태종과 활발히 교류하며 그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에 유학했던 승려들 역시 천태종에 익숙하였고, 그들의 후계자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여주 고달사지 전경. 고달사는 신라시대 창건돼 선종 도량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12세기 들어서 천태종 사찰로 변화했다. 이는 고달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다.

고달사, 신라시대 선종으로 시작

그러면서 최 교수는 고달사가 한국 선종과 천태종 성립과 참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봤다. 그는 “고달사는 우리나라 선종과 천태종의 성립과 발전에 모두 중요하게 참여했고, 이는 다른 사찰과 구별되는 고달사만의 특별한 성격”이라고 강조하며 “고려의 천태종은 일찍이 중국 절강 지방의 천태종에 접했던 선종 승려들이 선종의 전통을 유지한 채 집단적으로 전향한 것으로, 중국 천태종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은 ‘고달사지 승탑과 탑비의 특징’을 통해 현재 전해지는 ‘고달사지 승탑(국보)’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보물)’, ‘고달사지 원종대사혜진탑비’의 특징들을 살폈다.

박 실장은 “고달사지에 있는 두 기의 승탑은 ‘원종대사탑비’ 귀부이수의 조각 양식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국보로 지정된 ‘고달사지 승탑’이 원종대사의 승탑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다른 1기의 승탑을 원감대사 현욱의 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혜목산 사지나 고달사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이뤄져 더 많은 단서들이 축적돼야 일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만홍 국토문화재연구원 팀장은 ‘고달사지 공간 구성과 정비방향’을 통해 시기별 사찰 공간 구성을 분석하고 향후 보존 방향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사지 정비 방향에 대해 박 팀장은 “고달사지 주변은 숲이 잘 조성돼 있으며,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곳에 위치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장소”라며 “고달사지와 주변 혜목산에 위치한 다른 문화재들과 연계되고 탐방 동선이 설정된다면 고달사지의 사역은 광역적 의미에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심준용 A&A문화연구소 소장(건국대 세계유산학과 겸임교수)은 ‘여주 고달사지의 체계적인 활용에 대하여’를 통해 고달사지와 관련 문화유산의 활용과 운영계획 등을 살폈다.

심 소장은 “여주시청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 고달사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고달사지 활용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기획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박물관, 전시관 등의 건립이 가능하다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학술적 성격이 강한 박물관 등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광자원화가 목표라면 방문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트렌디한 공간 구성이 주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술 발표 이후에는 이승연 경기도박물관 학예사,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조 교수는 여주 신륵사, 고달사지를 묶는 ‘여주 불교투어 패키지’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달사지 복원에 조계종과 한국불교 종단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백제’로 시작하는 2021 세계유산축전

부여 · 익산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서 8월 29일까지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10월 17일까지 ‘2021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다. 지난 8월 13일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4곳의 문화유산 거점에서 각각 다른 일정으로 개최하는 이번 축전의 첫 행사는 공주시 · 부여군 · 익산시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이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게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세계유산축전은 국내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찾는 국 · 내외 관람객들을 위해 세계유산을 무대로 한 각종 전통공연과 체험, 재현행사,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 등을 마련하는 문화재 활용행사이다.

유적지 중 하나인 부여군의 정림사지에서는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전기간 동안 열리는 ‘백제역사의유적지구의 OST, 백제 풍류가’는 5개 팀의 뮤지션(김보경, 안녕바다, 여행스케치&마로니에, 조엘라)이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음악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대여해주는 개별 청취기기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유적지를 거닐어 보는 시간이다. ‘설치미술전 백제의 꿈’은 10명(팀)의 작가들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공간에 부합하는 시각예술작품을 창작하고 각 유적지에 설치하여 대중에게 선보이는 아트프로그램이다. 8월 28일 오후 8시에는 1400년 전의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특별공연 ‘다같이 백제로’가 열린다.

정림사지는 사비시대 수도의 중심 사찰이었던 정림사 옛터이다. 정림사지에 남아 있는 석탑(국보 제9호)에는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역사가 새겨져 있는데, 이로써 정림사가 백제 왕조의 명운과 직결된 상징적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익산시에 속한 유적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축전기간 동안 열리는 ‘설치미술 백제의 꿈’에서는 출토유물 조형물 전시와 만들기 체험을 통해 백제를 배운다. 미륵사지에서 열리는 상시전시에서는 백제 문화의 위대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설치미술품을 선보인다. 백제출토유물 응용전시품을 이용한 포토존도 운영한다. 금, 토,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체험부스(사전예약 30명)에서는 랜턴형 사리장엄구 백제문양 부채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미륵사지에서 8월 29일 오후 8시에 열리는 ‘다같이 백제로(路)’는 종합예술공연으로, 오케스트라와 시민합창단의 콜라보 공연과 미륵사지 창건 역사를 담은 공연, 익산 대표 무형문화유산인 이리농악과 지역 예술인들의 콜라보 공연이 열린다. 참가 인원은 사전예약 100명, 현장등록 300명이다.(041)630-2935.

익산시 금마면 표고 430m의 미륵산 아래 넓은 평지에 펼쳐져 있는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르 꼬르동 블루, 사찰음식에 빠지다

문화사업단, 올해 첫 정규강의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이하 문화사업단)이 르 꼬르동 블루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문화사업단은 “8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제2차 정규강의를 끝마쳤다”고 8월 19일 밝혔다.

앞서 문화사업단은 주영국한국문화원 및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도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의 ‘채식 전문 조리 과정(Plant-Based Culinary Arts)’에 사찰음식 정규강의를 총 2회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에는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이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과 함께 봄 제철 음식을 주제로 쑥 버무리, 취나물, 고수전 등의 조리법을 제1차 정규강의로 진행했다.

김치와 여름 제철음식을 주제로 이뤄진 이번 제2차 정규강의도 법송 스님이 맡았다.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스님이 화상회의시스템 줌으로 요리 시연을 하면, 런던캠퍼스 학생들이 이를 보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총 3시간 동안 이뤄졌다.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이 조리 시연을 완료한 사찰음식 앞에서 온라인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은 “앞으로도 문화사업단은 전 세계 여러 교육기관 및 학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자 식문화인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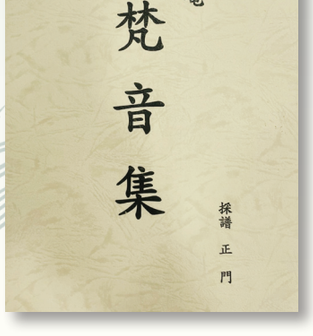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구암스님 범음집



영남법음범패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보유자이셨던 구암스님의 염불소리를
배우기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음률 높낮이대로 채보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악보화 하였습니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 2길 32-81 영원사
문의전화 010-3156-2211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